

죽음, 또다른 삶의 여정...고대 장례풍속 전시로 만난다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내년 3월1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신라·가야 상형토기·토우장식 전시고 이견희 기증 말모양 빨잔 등 "시대 초월한 감정 끌어내는 시간"

고대인들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여정'이었다.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는 상형토기를 통해 다음 세상에서도 현재의 삶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장송의례를 치렀고 토우장식 토기로 죽음 이후에도 편안한 삶이 영위되길 소망했다.

'계세사상'. 즉 죽은 뒤 다음 세상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고대인들은 망자들이 사후세계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종 문양과 형식으로 의례용품들을 제작해 무덤에 함께 넣는다. 1600여년 전 신라와 가야의 내세관이 투영된 토기들은 오늘날까지도 발굴되기에 이른다.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가 지난 12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특별전의 두 번째 순회전시로, 신라·가야의 토기에 나타난 고대 장송의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크게 2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1부는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다. 사람, 동물, 사물을 본떠 만들어져 술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는 재의에 사용된 토기부터 상서로움과 권위 등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상형토기들을 만날 수 있다.

2부는 '헤어짐의 이야기, 토우장식 토기'다. 작은 흙인형인 토우를 토기 곁에 부착해 장식한 토기, 사냥을 하고 일을 하던 모습이 담긴 토기,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각종 동물이 생생하게 표현된 토기들로 수놓는다. 특히 1926년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수습한 토우장식 토기를 다수 소개할 예정이다.

상형토기와 토우장식을 살펴보다 보면 시기별로 제작된 토기들을 통해 당시 시대상과 생활상을 빚대어 상상할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새를 숭배하는 전통이 있다. 곡식의 씨앗을 물려다 주는 곡령으로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새를 망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매개자로 장례에도 사용했고, 이는 경주 지역에서 3세기 후반~4세기 때 만들어진 새 모양 토기가 자주 발굴된 데서 재차 확인된다.

5세기에 들어서자, 새 모양 토기는 말을 본뜬 토기로 점차 대체된다. 삼국시대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대외교류는 활발해졌고 말은 최고의 교통



국립광주박물관 1층에 전시된 토우장식 뚜껑들.

수단이자 중요한 전쟁 수단이었다. 말의 중대성은 상형토기에서도 드러난다. 5세기 들어와 상형토기의 외관은 다양해졌다. 신발, 수레, 배 등을 본떠 만들어졌고 말도 주요 대상 중 하나였다. 죽은 이가 먼 사후세계로 향할 때 수고를 덜어주는 조력자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물의 기운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 높게 솟은 동물의 빨 모양인 빨잔 등이 장송의례에 많이 사용됐다. 하늘과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토우장식 토기에는 죽은 이를 떠나보낸다는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의미가 담

겨 있다. 춤과 노래로 상실감을 극복하고 삶을 회복하려는 축제 같은 의식과 상징적인 동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입체적으로 표현됐다.

토우장식 토기들은 5세기 후반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가 6세기 들어서며 점차 사라진다. 이를 이유로 학계에서는 당시 신라에 불교가 도입되기 전 토속종교의 의례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보인 경주 계림로 출토 토우장식 항아리가 처음으로 광주에 전시됐고 최근 발굴한 해남 읍호리 고분군 출토 부뚜막모양 토기도 새롭게 복원해 선보인다. 고 이견희 회장이 기증한

'말 모양 빨잔'도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또 특별전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됐다. '토우야반가위'는 초등학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시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천연점토로 나만의 토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학습을 병행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가 직접 전시를 소개해 전시품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지난 11일 열린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개막식·언론공개회에서 "15년 전 페루에서 특별전을 관람했었는데 당시 토기가 단순한 기구를 떠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시대의 동물상과 생활상 등이 담긴 모습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고대 내세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소회했다.

전시를 담당할 노형신 학예연구사는 "고대의 내세관과 장례를 이해하고, 죽음 앞에 시대를 초월한 슬픔이라는 감정을 직시해 인간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특별전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는 내년 3월1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글·사진=박찬기자**

김소정 작곡집 출간 기념 음악회 열린다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 등을 다룬 정서를 여러 시인의 아름다운 가사로 표현한 김소정(사진) 작곡가의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 '아름다운 오월의 노래(Beautiful May Songs)'가 14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작곡가협회와 한국작곡가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김소정 작곡가가 작사·작곡한 아홉 편의 곡을 감상할 수 있다.

김소정 작곡가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작곡집 '가보고 싶은 길' 출간 이후, 광주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이번 '아름다운 오월의 노래'를 발간하게 됐다.

행사는 바리톤 염종호의 '사랑은 모닥불에 잠기고', '손에 잡히지 않아 아름답다' 등의 무대가 펼쳐지고 소프라노 김선희가 '바람의 언덕', '가을 사랑'을 선보인다.

이어 김소정 작곡가가 무대에 올라 자작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 피아노는 박지현, 바이올린은 임리경, 사axes는 김정희씨가 각각 맡아 진행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10-3648-5755로 하면 된다. **박찬기자**

광주시립극단 제23회 정기공연 '양림 in 광주'

22~24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각색

광주시립극단 제23회 정기공연 '양림 in 광주'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양림 in 광주'는 광주시립극단 제1회 창작희곡공모에 당선돼 지난 2021년과 2022년 입체낭독공연으로 관객과 전문가들을 만나 호평을 받았던 '양림'을 원광연 예술감독이 각색해 취임 후 첫 연출작으로 올리는 작품이다. 양림을 배경으로 조선의 성녀 테레사로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의 양자인 미감아 요셉을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요셉이 양어머니를 잃고 양림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공연은 버림받은 자가 구원자가 돼 돌아오는 성서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와도 닮아있다.

이번 작품을 연출한 원광연 예술감독은 지난 6월 광주시립극단 제3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한국연극협회광주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1993년과 1995년 전국 대학생연극제 대상(교육부장관상),



광주시립극단 제23회 정기공연 '양림 in 광주'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2010년, 2012년, 2016년 광주연극제 광주시장상, 2022년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원 감독은 "연극 '양림 in 광주'를 통해 광주의 근현대사를 돌아보고 그 역사 속 주인공 요셉의 삶과 선택의 과정에서 의

로운 일에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선택해 왔던 광주의 정신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13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러닝타임은 100분이고, 전석 1만원 지정석으로 운영된다. **박찬기자**

다양한 장르영화 통해 인도 문화 속으로

ACC, '2024 인도영화제' 개최 16~17일 문화정보원 극장3 칸타라 등 국내 미개봉작 선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6~17일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주한인도대사관·인도문화원과 함께 '2024 인도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 미개봉한 인도 영화를 만나볼 기회로 긴장감 넘치는 액션 스릴러부터 감동적인 드라마, 유쾌한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인도의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를 소개한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순회 상영되는 '2024 인도영화제'의 공식 개막작은 키란 라오 감독의 '라파타 레이디스'로, 2025년 오스카 국제장편영화 부문에 인도 공식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두

신부가 열차 여행 중 서로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정체성과 가부장제라는 복잡한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또한 인도 남부의 전통 의식을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을 다룬 액션 스릴러 '칸타라', 용서와 해방을 향한 여정을 통해 여성 내면의 성장과 관계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다룬 '쓰리 오브 어스'가 관객을 기다린다. 두 작품은 각각 칸타라어와 힌디어로 제작돼 인도의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연령은 12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영상이라는 익숙한 매체를 통해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광주아버지합창단 제33회 정기연주회 개최

오늘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오동준)은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정기공연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윤원중 지휘, 운영주반수로 '소나무'를 시작으로 '동백섬', '님은 먼곳에' 등 가곡을 비롯한 뮤지컬

'영웅'의 '단지동맹', '누가 죄인인가' 등 13곡을 마련했다.

다양한 음색을 가진 건반악기 '일렉톤' 최우리 연주자와 협연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출연으로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은 '한글 교육, 춘가찬가' 등 3곡을, 어머니들의 하모니 맘마싱어즈가 '꽃피는날'을, 에르주네스(이채연, 김성민,

장수빈)가 '신호등, 아름다운 나라'를 들려준다. 윤주승 색소폰 연주자의 특별출연 곡도 무대에 오른다.

1998년 3월 창단된 광주아버지합창단은 광주지역의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들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8시 틈틈이 만나 연습을 진행하며, 지역 의료시설과 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꾸준히 찾아 희망의 노래를 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동환기자**